

##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26-27, 고린도전서 10:13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성령강림주일이다. 스톨 색깔이 바뀌면 여러분이 절기를 알 아볼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다라방에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다. 나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설교의 패턴이 교회 절기를 따라 말씀을 인도받는 경우가 있고, 민족의 절기도 또 있지 않나. 그런 것 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62가지 삶을 생각하면서 잠언을 묵상하는 중이다. 그래서 절기 중심이 아 니라 말씀의 순서를 따라 오늘도 잠언을 묵상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영국에 어거스터스 M. 토폴레디라는 목사가님이 있었다. 교우들과 소풍을 갔는데,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다. 뇌성벽력이 치고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피해야 할 것 아 닌가? 그런데 보니까 바위가 있었다. 큰 바위에 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가님이 깨달은 것이다. ‘그리스 도께서 영원한 반석이지 아니하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 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세반석 아 닌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감이 떠올 라서 지은 시가 찬송가 494장이다. “만세반석 열리니.” 학교 다닐 때 찬양대 개회 송이 이것이었다. “빈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가진 것 없는 빈 손이지 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서 피하게 하신다 는 것이다. 그 시에 곡을 붙인 것이 494장이다. 오늘은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참된 안식처가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 도 안에서 참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평 안이 없어서, 이 반석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민족, 이웃, 세계인에게 참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증거를 찾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 기 를 바란다.

### 1. 왜 피난처가 필요한가?

잠언 14장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를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피 난처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다.

(1) 잠언 14장에서 성경 저자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세상 의 모습이 어떠한가? 14장 2절을 보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고 말씀하고 있다. 14장 5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8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 된다고 했다. 미련한 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오늘의 현 실이다. 9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다. 죄를 짓는데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팽배해져 간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 주를 해도, ‘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 마약을 하는데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 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좋다, 괜찮다, 훌륭하다 하는 것이 바 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16 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야 할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 하게 되어서 스스로 믿고 있다.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다. 14장 34절을 보니까, 죄 로 인해 온 백성이 욕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니까 죄 에 빠지고, 그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현장의 참담한 영적 상태다. 이 성경을 기록한 3500년 전과 지금이 마찬가지로.

(2) 그러면 이 부패와 죄악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잠언 14장은 일관되 게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미련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 까지 잠언을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했지만, 참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다시 말한다. 잠 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 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멸망하게 된 것이다. 머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다.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 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편 14:1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잠언 14장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미련 함의 본질이다. 로마서 1:22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스르고 반대로 간다고 했다. 이렇게 되니 까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 고, 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의 결 과로 인생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창세기 6장의 결과로 홍수 재앙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으며, 창세기 11장의 결과로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나뉘 어져서 완전히 혼잡을 이루게 되었다. 해위를 다녀 보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정 말 어렵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하고 바벨탑을 허물어버릴 때 말이 안 통하게 만 들어 버렸다. 벽돌 올리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흙덩어리가 올라오고, 인간 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다. 온갖 타락에 빠졌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한 번은 여행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휴. 죄 지은 바 람에 언어가 혼잡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류목사님 이 그러시더라. “말이 통했으면 더 많이 죄 짓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 지도 모른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한결 같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진 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3:36에 말씀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오는 불신자 상태의 문제요,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저주요, 사회와 세상에 오는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 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다. 주 안에 피하시기를 축복한다.

### 2. 재앙을 피할 피난처를 붙잡고 누려라.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제는, 잠언 14:26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피난처를 찾고 누리라는 것이다.

(1)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은 심판과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 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무수히 약속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다. 요한복음 16:33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로마서 8:31-39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특히 오늘 읽은 것 처럼, 고린도전서 10:13에는 말씀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 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다 예비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요한일서 5:4-5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 길 수 있다고 했다. 잠언 14:11에 말씀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은 무너뜨리고 정직한 자, 의로운 자를 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다. 무엇이 정직한가? “나는 복음 없어도 괜찮다, 나는 죄 없다”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요일1:9).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시간에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순서가 있다. 그게 사죄의 선언이다. 사죄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나.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구원 다 받았는데 뭘 주일마다 죄 용서받았다고 또 선포하나’ 할 수 있는 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많은 교회가 그 순서를 모르고 빼 먹고 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죄를 안 짓는가? 나를 돌아보면, 청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 하루를, 한 시간을 못 가더라. 회개한다고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한 움큼씩 뺏혀나가더라. (웃음) 그때 많이 뺏은 덕분에 지금 머리가 안 빠지는지도 모르겠지만 (웃음) 요한일서 1:9에서는 그래서 말씀한 것 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 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어찌 주님 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말입니까. 나에게는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 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이 없게 된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말 했다. “그러면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하신다. “이미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원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한다. 신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해결이 안 되어서,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자범죄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른 채 해결을 못 하고 계속 고생해야 한다. 옛날에는 봄에, 가을에 부흥회를 해서 겨우 교회를 유지했다. 회개하라 소리쳤다. 눈물로 회개를 다 해 놓고 은혜 다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죄 문제와 모든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그 보따리를 집에 또 가져다놓았다. 가을 부흥회 때 또 가지고 온다. (웃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문화화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 불신자 상태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우리를 보고 어떤 교회는 너무 확실해서 이단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던데, (웃음) 뭐가 뭔지 모르고 희미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는가. 정직이 뭐가? 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성도가 무슨 말인가? 거룩한 무리 아닌가? 우리가 무슨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안 보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결과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덮어주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늘에 숨어있는 사람만이 참 의인이요 참 정직한 자인 것이다.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란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성경과 교회시에는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 온 세상이 기근을 만났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살 길이 있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다 무너졌는데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있었다. 전 세계에 흉년이 와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디옥교회에는 경제 기적이 일어났다. 재앙을 피하고 재앙을 이기는 역사가 교회사에 준비한데, 우리 참사랑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보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국회를 개원할 때, 이승만 박사가 임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래서 국회를 열 때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 개회 기도를 부탁했다.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라. 아주 훌륭한 기도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게 하고 세우실 줄 믿는다.

(3) 그러면 재앙을 피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7:7에서 다윗은 말했다.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시편 18:2을 우리가 잘 안다.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았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란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붙들시기를 축복한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한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잡을 때, 그가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4:27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성경에 이름과 같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생명의 샘에서 마시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호와께 피하라. 그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19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일서 3:13에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히 오는 것이라는 말이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것이 결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만 불러도 된다.

잠언 14:32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었드러지게 되겠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다. 복음 가진 자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닌가. 나는 이번에 놀랐다. 우리 박정금 권사님 남편 김중의 성도님을 처음 심방했을 때는, 몸이 매우 괴로운 상황이셔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그래도 말씀이 계속되니까 좀 수고를 하시더라. 그러더니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타나셨다. 정년영 장로님이 구역장이신데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락방도하시고 그랬다고 한다. 그러면 사역자의 말이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 이분이 참 인격자시더라. 나중에는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 “장로님이 말씀했으니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가정예배도 드렸다고 한다. 강원도에 소망부 여행 갈 때 동행하셨는데, 노래를 두 곡이나 부르셨다.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깜짝 놀랐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훌륭한 할아버지 한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구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너무 놀랐다. 박정금 권사님께서는 죄송한 말이지만, “야, 이분은 진짜 죽음의 복을 얻으셨구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평상시에 전화도 잘 안 하던 친구, 친척들에게 웬일인지 전화를 다 하셨다고 한다. 아들 집에 갔다가 돌아오시더니, “나 좀 이상하다.”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집으로 갔다는 말 아닌가. 아마도 지금 천국에서 “와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친척히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있을 것이다. 믿는 자는 눈 떠 보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죽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가서 장송곡을 부르지 않는다. 천국 찬송을 부른다. 천국에 가셨지 않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가 효도하고 부인이 잘 돌봐준다 해도 천국만 할 수 있겠나.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다.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됐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죽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130년 만에 민족 2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 역사상 이교도 민족 중에서 이렇게 역사 일어난 적이 없다. 현장 가 보면 불신자라 해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 민족이 스스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수밖에 없을 줄 믿는다. 요즘은 애국가 가사를 ‘하느님이 보우하시’ 이러는데, 처음에 애국가를 쓴 작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 라고 했었다. 세계 어떤 언어 중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잘 설명한 언어가 없다. 영어로는 God, god, 대소문자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말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 절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한 것 아닌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 더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이다.

잠언 24:16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었드러지느니라.” 미가 7:8에는 말씀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었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앓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재앙을 넘어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38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한다. “내게는 피난처가 있다.” 이 한 마디를 간직하고 기도하다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강림주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참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의 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한 피난처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